

## 저작 형태가 교합면 마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 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보철학 전공 김성균

저작은 치아, 악골, 저작근 뿐만 아니라 근 신경계, 고위 중추까지 복합적으로 관여되어 행하여지는 기능적 행위이다. 저작 형태는 다양한 모양을 가지나 두 가지 전형적인 군, 즉, 전방에서 관찰 시 그 양상이 수직적이며 chopping운동을 하는 군과 주로 측방으로 이루어지며 grinding을 하는 군으로 나눌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저작 형태의 차이가 교합면 마모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것이다.

두개 하악 관절과 저작 습관에 이상이 없으며 교합면에 수복물이 없는 치과 대학생으로 하악 운동 궤적 기록기( BioPAK®, BIORESEARCH INC. Milwaukee, USA )를 이용하여 상기의 전형적인 2가지 저작 형태를 보이는 각 15명씩을 피검자로 선택하였다. 각 피검자에 대한 임상 검사를 통해 ordinal scale로 교합면 마모의 등급을 조사하여, 평균 치아 마모도와 부위에 따른 치아 마모도를 비교 조사하였다. 각 피검자에 대한 인상 채득 후 모형을 제작하고 arbitrary scale로 교합면 마모의 등급을 조사하여, 평균 치아 마모도와 부위에 따른 치아 마모도를 비교 조사하고 저작측과 비저작측 마모를 비교 조사하였으며 horizontal facet과 vertical facet을 비교 조사하였다.

1. 평균 치아 마모도는 ordinal scale로 측정하였을 때, chopping 형과 grinding 형간에 유의할 만한 차이가 없었다. (  $P > 0.05$  ).
2. 부위에 따른 치아의 마모도는 ordinal scale로 측정하였을 때, chopping 형과 grinding 형간에 유의할 만한 차이가 없었다. (  $P > 0.05$  ).
3. 평균 치아 마모도는 arbitrary scale로 측정하였을 때, chopping 형에 비교하여 grinding 형에서 높은 마모도를 보였다. (  $P < 0.05$  ).

4. chopping형에 비교하여 grinding 형은 arbitrary scale로 측정하였을 때, 구치부에서는 높은 마모도를 보였으며 전치부에서는 유의할 만한 차이가 없었다 (  $P < 0.05$  ).
5. 구치 평균 치아 마모도와 부위에 따른 치아의 마모도는 비작업측에서 chopping 형과 grinding 형간에 유의할 만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  $P > 0.05$  ).
6. 전치 평균 치아 마모도와 부위에 따른 치아의 마모도는 vertical facet과 horizontal facet 비교시, chopping 형과 grinding 형간에 유의할 만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  $P > 0.05$  ).